



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 제도 도입과 시사점

왕양비 연구원

■ 중국은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격인 사회양로보험의 대상을 도시거주 무직자로 확대할 계획임.

- 중국은 2009년부터 농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‘신 농촌양로보험’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하여, 2020년까지 모든 농촌주민을 보장해줄 계획임.
- 도시 거주자의 경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주민이 현행 사회양로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으나, 이번 ‘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’ 제도의 마련으로 중국 사회양로보험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.
- 도시주민 양로보험은 기초양로금과 개인계좌양로금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, 공평한 사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‘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’과 ‘신 농촌양로보험’의 정부부담 기초양로금 최저지급액*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함.
 - * 기초양로금은 각 지방사회보장국이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금계좌인 ‘사회조달계좌’로 전액 지급되며, 중앙정부가 설정한 최저지급액 기준을 기반으로 지방 사정에 따라 기초양로금의 실제 지급액이 차등화될 수 있음.
- ‘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’은 올해 전국 60%의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하고, 내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며, 이번 계획으로 약 2~3억명의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■ 그러나 재정적 여유가 없는 지방정부의 기초양로금 지원부담이 이번 계획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, 높은 임금상승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‘도시주민 사회양로보험’ 수령액의 실제구매력 확보도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.

-
- 임금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수준의 투자수익률 확보를 위한 적절한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하고, ‘사회보장재단’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 - 정부가 마련한 각종 사회보장기금을 운용하는 중국 사회보장재단(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)은 2001~2010년 동안 9.17%에 달하는 평균 투자수익률을 기록한 반면, 중국 사회양로보험 개인계좌는 2% (2009~2010년)에도 못 미치는 투자수익률을 기록함.

(중국경제시보, 6/3)